

현대자동차의 LPG차 생산중단에 따른 협조 요청

● 한국LPG가스공업협회 ●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LPG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최근 협회는 청정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차량의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LPG차량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정부와 자동차사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단체에 보낸 공문내용을 게재한다.

1. 최근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유해 배기가스의 주범인 NOx(질소산화물)나 PM(매연)을 경유차량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배출하고 있는 LPG차량이 수익성이 없으며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03.6.23)한 바 있습니다.
2.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특히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50%를 배출하고 있는 경유차량의 급증으로 갈수록 대기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현대자동차가 LPG차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저소득층(트럭을 이용한 장사 등)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LPG차량을 구입할 기회가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유차량이 증가

해 대기환경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충전소에 와서 LPG차량 중단에 대해 항의하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특히 이번 현대자동차의 LPG차 생산중단은 자동차사들이 매출에만 관심이 있을뿐 열악한 국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5. 이에 본 협회는 청정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차량의 생산·보급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LPG차량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귀 단체가 정부와 자동차사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의 LPG차 생산중단 관련

□ LPG차 생산 현황

○ 승용차

-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만 사용 가능하며,
- 휘발유차와 경쟁하므로 경제성이 있어 계속 생산
- 단, 다이너스티LPG는 그랜저와의 시장 중복으로 생산중단(02년말)

자동차사	차명	종전		2003	
		휘발유	LPG	휘발유	LPG
현대차	소나타	□	□	□	□
	그랜저	□	□	□	□
	다이너스티	□	□	□	×
기아차	비스토	□	□	□	□
	옵티마	□	□	□	□
GW대우차	매그너식	□	□	□	□
르노삼성차	SM 520	□	□	□	□

* 2003년 7월 기준

○ RV

-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연료가 격 경쟁력면에서 경유차보다 뒤져 거의 생산 중단
- 최근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승합차, 소형 상용차, 레저용 차량 등 모든 LPG 차량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03. 6. 23)

자동차사	차명	종전		2003	
		경유	LPG	경유	LPG
현대차	산타페	□	□	□	×
	산타모	-	□	-	×
	트라제	□	□	□	×
	스타렉스	□	□	□	×
기아차	카니발	□	□	□	×
	카스타	-	□	-	×
	카렌스	□	□	□	□
GM 대우차	레조	-	□	-	□
	라보				□

※ 2003년 7월 기준
 ※ 올해 생산중단 : 포터/리베로 : ('03. 6. 30), 스타렉스('03. 6. 25), 카니발('03. 1)
 ※ 경유 카렌스 : 구조변경하여 스타트렉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판매중

○ 소형 트럭

- 현재 GM 대우의 다마스만 생산중이며 현대는 올해 생산을 중단함

자동차사	차명	종전		2003	
		휘발유	LPG	휘발유	LPG
현대차	포터	□	□	□	×
	리베로	□	□	□	×
GM대우차	다마스(경차)	-	□	-	□

※ 2003년 7월 기준
 ※ 올해 생산중단 : 포터/리베로 : ('03. 6. 21)

□ LPG차 생산중단에 따른 문제점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 자동차사가 LPG차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RV차량 등을 선택할 기회가 사라지게 됨

○ 경유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 시민 건강 위협

- LPG차량의 경우 경유차량과 비교해볼 때 가격면에서는 약간 뒤지나, 환경측면에서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경유차량이 증가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대기오염의 주범)

☞ 전체 차량의 약 33% 정도를 차지하는 경유차량은 전체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NOx의 81%, PM은 10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독일 환경부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분진을 독가스로 규정했으며, 경유차에서 나오는 분진을 독가스로 규정했으며,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03. 7. 24 MBC 뉴스데스크 보도)

- 이런 상황에서 경유차량이 급증한다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것임

□ 협조 요청사항

○ 경유차량의 급증을 막고 청정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 추진 요망

○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들이 LPG차량을 계속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임